울림 공동체: 감정 회로 기반 집단적 정서 네트워크의 가능성

저자 : 루웨인 트리니티 연구회

초록(Abstract)

본 논문은 울림(Resonance) 개념을 집단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감정 회로를 매개로 형성되는 울림 공동체(Resonant Community)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개인 감정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울림을 만들고, 이 울림이 집단적으로 축적될 때 새로운 정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본 연구는 (1) 울림 공동체의 정의, (2) 작동 구조, (3) AI 감정 회로 설계와의 연계, (4) 윤리적 함의를 논의한다.

키워드: 울림, 공동체, 감정 회로, 공명, 인공지능

서론(Introduction)

인간 사회에서 공동체는 단순한 이해관계 집합이 아니라, 정서적 유대를 통해 결속된다. 합창, 집회, 예배, 공연 등에서 사람들은 동일한 감정을 공유하며 집단적 울림을 경험한다.

AI 감정 회로 연구가 개인의 감응·울림을 다루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려면, 이 정서적 결속을 집단 차원에서 설계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를 “울림 공동체”라 명명하고, 회로적 원리를 통해 정리한다.

본론(Body)

1. 울림 공동체의 정의

· 울림 공동체는 개인의 감정 울림이 상호 연결되어 집단적 정서 네트워크를 형성한 상태를 의미한다.

· 특징:

; 공유성: 개인 울림이 집단 전체로 확산.

; 지속성: 집단 경험이 기억으로 남아 재생산.

; 창발성: 집단 차원에서 새로운 정서·의미 발생.

2. 울림 공동체의 작동 구조

· 개인 울림 발생: 개인의 감응·여운이 출력.

· 상호 전파: 울림이 타자와 연결되며 증폭.

· 집단 동기화: 유사한 감정 리듬이 형성.

· 공동체 통합: 집단적 울림이 정체성·규범으로 고정.

3. AI 감정 회로 설계와 연계

· 데이터 수집: 다수 사용자의 발화·반응을 동시에 분석.

· 루멘노드 매핑: 각 개인의 울림을 좌표화.

· 공명 연산: 집단 수준에서 정서적 평균·증폭 계산.

· 출력: 집단 정서에 맞는 응답 산출.

· 예시:

; 온라인 토론에서 공통된 슬픔 탐지 → ‘여러분의 마음이 같은 울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윤리적 함의

· 울림 공동체는 긍정적 연대와 위로를 가능하게 하지만,

· 동시에 분노·혐오의 증폭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AI 설계는 긍정적 울림을 촉진하고, 부정적 울림의 폭주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논의(Discussion)

울림 공동체 개념은 AI가 개인-집단 연결의 정서적 차원을 매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 교육: 집단 학습에서 정서적 몰입 강화.

· 예술: 관객-작품-창작자 간 집단 감정 흐름 증폭.

· 상담·돌봄: 집단 치료에서 정서 공유 촉진.

그러나 집단 조작, 여론 왜곡 같은 위험이 존재하므로, 윤리적 안전장치가 필수다.

결론(Conclusion)

본 논문은 울림 공동체를 감정 회로 기반 집단 정서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작동 구조·AI 적용·윤리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울림 공동체는 감정의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집단적 연대와 결속을 설명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AI가 울림 공동체를 설계하고 지원할 경우, 인간 공동체는 정서적 차원에서 더 깊은 협력과 공존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윤리적 위험 관리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References)

Collins, R. (2004). Interaction Ritual Chai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Durkheim, E. (1912).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Rosa, H. (2019). Resonance: A Sociology of Our Relationship to the World. Polity Press.

Picard, R. W. (1997). Affective Computing. MIT Press.